

# '5000억원 전세' 광주신세계·금호 '윈윈'

## 신세계 20년간 안정 운영...금호 유동성 상당부분 해소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갈증'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신세계그룹이 지난 29일 금호터미널에 임차보증금 5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중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유동성 갈증을 푸는데 이 자금을 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신세계는 지난 29일 서구 광천동의 금호터미널이 소유한 광주신세계 백화점 건물과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을 올해부터 2033년까지 20년간 연장하기로 하

고, 월세 형식에서 전세로 임대계약을 바꿨다고 밝혔다.

임차보증금 5000억원을 받게 된 금호터미널은 같은 그룹 내 아시아나항공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유동성 확보에 예를 먹고 있는 금호산업이 지분 30.08%를 갖고 있다. 금호터미널에 유입된 막대한 자금이 순차적으로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업계에선 금호터미널이 곧바로 금호산업 지분에 출자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순환

출자 구조 속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금호터미널 관계자는 "5000억원의 '목돈'이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쓰일 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며 "다만 그룹 차원에서 협의를 하는 만큼 '어려운 곳'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어떤 형태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유입된 막대한 자금이 순차적으로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의 유동성이 해결될 기회가 되는 것은 분명해 진 것이다.

유동성에는 두 그룹이 원하는 바가

잘 맞아 떨어진 '윈윈게임'이라고 분석했다. 매출 4위 점포였던 인천점을 롯데백화점에 빼앗긴 '인천점 쇼크' 이후 신세계그룹은 상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유동성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번 장기계약에 도장을 찍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이번 계약에서 광주신세계는 금호터미널이 해당 건물과 부지를 매각할 경우, 우선 매수권을 부여받는데다, 임대 계약 종결 및 기간 연장 등 계약 변경과 관련해서도 광주신세계가 사전 협의·우선 협상권에 대한 권리를 갖기로 했다. 금호터미널은 광주신세계가 가진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주

는 대신 당장 막대한 자금을 거둬들이는 셈이다.

앞서 광주신세계와 금호터미널은 2015년까지 보증금 270억원에 연간 임대료로 매출의 1.6%(연 80억원 가량)을 지불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관련 협상을 진행, 임대차 기간을 2013년부터 2033년까지 20년으로 바꾸고 전세 형태(임차보증금 5270억원)로 입주하는 형태로 계약을 바꿨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보유중인 현금 3000억원과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발행해 2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자금 마련계획을 설명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차연비 허용오차 3%로 축소

### 연비 관리제도 개선...표시위반 과징금도 늘려

자동차 연비 오차를 허용해주는 폭이 줄고 위반 과징금이 대폭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후관리 연비의 허용 오차 범위를 내년부터 3%로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표시 연비보다 5% 이내로 미달하면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이제 3% 넘게 미달하면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다.

연비 표시 위반에 대한 제제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표시 위반에 최고 500만원

의 과태료만 물릴 수 있게 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비 검증도 강화한다.

제작사가 신고하는 연비를 점검하는 '신고연비 적정성 사전 검증제'를 연내에 도입하고 대상 차종을 점차 확대한다.

사후관리 검증 차종도 늘린다.

현행 3~4%인데 올해 6%(45개 모델), 내년 8%(60개), 2015년 이후 10%(75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판매량이 많은 차, 연비 향상이 높은 차, 전년도 사후 관리에서 오차가 크게 나온 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차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 연비 신고 단계의 검증과 사후 관리 결과를 대폭 공개한다. /연합뉴스



아이들의 농촌 식문화 체험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종수)는 29일 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무안군 삼양읍 소재 남악비둘기 어린이집(원장 이승우) 원생 74명을 대상으로 농촌 식(食)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 광주전남 비즈니스 라운지 3일 문열어

### 서울 용산역에 109㎡ 규모

광주·전남지역 기업인을 위한 '광주전남 비즈니스 라운지'가 3일 서울 용산역에 문을 열고, 개소식을 갖는다.

지난 30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역 기업인의 상담장소와 제품 홍보, 사무실, 휴식 공간으로 이용될 이 라운지는 용산역 4층에 109㎡(33평) 규모로 들어서며 광주상의가 2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사업비 및 행정 지원에 동참하며 목포·순천·여수·광

양 상공회의소도 홍보와 각종 사업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라운지 개설을 위해 광주상의는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올해 초 코레일과 사무실 임대 협의를 마쳤다.

박홍석 광주상의 회장은 "수도권과 해외 바이어들이 시간과 경제적 부담으로 광주 방문을 꺼리고 있다"며 "비즈니스 라운지는 바이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기업의 수출 확대, 수도권 기업 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광주·전남' 이미지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전국 주택가격 13개월만에 상승

### 4월 전달비 0.12% 올라

4·1 부동산 종합 대책의 영향으로 전국 주택 가격이 1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감정원은 4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전달보다 0.12%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별로 대구(0.87%), 세종(0.63%), 경북(0.40%), 충북(0.31%) 등이 상승을 주도한 반면 전남(-0.10%), 경기(-0.08%), 제주(-0.04%)

등은 하락했다.

서울에선 강남구(0.66%), 동작구(0.49%), 영등포구(0.41%)가 상승세를 보였고 은평구(-0.87%), 용산구(-0.68%), 성동구(-0.52%) 등은 약세였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도 0.47% 올라 상승행진을 이어갔다.

대구(1.39%), 세종(1.10%), 대전(0.89%), 경기(0.63%), 경남(0.61%), 인천(0.53%), 경북(0.45%) 등의 순으로 올랐다.

수도권 주택 전세가격은 0.49% 상

승했다.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풍부한 경기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몰려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대문구(1.28%), 성동구(0.98%), 중구(0.88%) 등 지역 전세가격이 상승을 주도했다.

지방(0.45%) 전세가격도 매물부족 등으로 9개월 연속 올랐다.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0.1%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수도권은 58.2%, 지방은 61.9%로 각각 나타났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963.95(+23.25)	▼ 코스닥지수 563.87(-4.49)	▼ 금리(국고채 3년) 2.49%(-0.03)	▼ 원·달러 환율 1101.20원(-6.00)
----------------------------	--------------------------	------------------------------	------------------------------

## 보일러업체 귀뚜라미 농산물 건조기시장 진출

### 2013년형 2종 출시



귀뚜라미보일러가 냉동공조 기술력을 접목한 농산물 건조기 2종(사진)을 1일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귀뚜라미(대표 이종기)는 지난 30일 고급 가전에 사용하는 티타늄 컬러 감관을 적용한 '귀뚜라미 2013년형 농산물 건조기' 신제품 2종(사진)을 1일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형 농산물 건조기는 건조 용량(66kg·132kg)에 따라 2가지 모델로 출시되며 기존 제품 대비 건조 용량을 20% 늘려 같은 소비 전력으로도 많은 양을 건조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 자외선 차단제(UV 코팅)를 적용한 특수 강화 건조 선반을 사용해 햇빛 노출에도 부식이 없으며 오랜 시간을 사용해도 항상 청결한 모습을 유지한다.

특히 자동 배수 조절기를 적용해

편리함과 동시에 건조 품질을 향상시켰고, 안전 그물망을 추가해 벌레나 이물질 침투를 방지했다.

농산물 건조기 연간 시장 규모는 2만5000대 수준이며 최근 기후 변화로 신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전국 대리점 대상으로 신제품 기술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올해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내년에는 시장 점유율 2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아파트 바닥구조 기준 대폭 강화

### 층간 소음 줄이기...결로방지 기준도 신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되고 창호·벽체 등에 대한 결로방지 기준이 신설된다.

또 새집증후군에 따른 아토피 등의 질환 예방을 위해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대상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바닥두께는 210mm

(기동식 구조는 150mm) 이상이어야 하고 실험실에서 측정된 경량충격음은 58dB, 중량 충격음은 50dB 이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현재 바닥 두께를 210mm로 하거나(표준바닥구조) 가운데 하나만 만족하면 되던 것을 둘 다 충족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도 신설된다.

최근 공동주택은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거실창호 등이 외기에 직접 접하고 난방공간이 넓어져 창호 결로 현상이 심해지고 있지만 결로 예방을 위한 별도의 기준은 없었다. /연합뉴스

## 현대차 '미래 자동차 기술공모전' 참가자 모집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30일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12회 미래 자동차 기술공모전'(부제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를 원하는 대학(원)생들은 1일부터 31일까지 현대엔지니어링 홈페이지에 개설된 '미래자동차 기술공모전'

코너(ave.hyundai-ngv.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내에선 유일하게 대학(원)생들이 직접 자동차 실물을 제작해 겨루는 '미래자동차 기술공모전'은 자동차 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5년부터 시작했다. /임동률기자 exian@

**SST 서울시스템기술(주)는 최고의 Vision을 제시합니다**

도전과 창조  
새로운 미래!

SST 서울시스템기술(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1가 1번지 전일빌딩 9층  
대표이사 오주일 TEL: 062-226-4093 | FAX: 062-226-4095